

# ‘스마트스튜디오’서 농식품 콘텐츠 제작하세요

aT, 농식품 판로 확대 위해 사진·동영상 촬영·온라인 홍보 지원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 실시간 요리방송·브랜드 로고 제작도

청년농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로 진출하는 농산물이 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 등은 자체 시설을 마련해 농식품 사진과 동영상 촬영, 온라인 홍보를 돕고 있다.

2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서울 aT센터 ‘스마트 스튜디오’에서는 농식품 홍보를 위한 사진물 561건과 영상물 44건이 제작됐다.

‘스마트 스튜디오’에 전문 사진작가와 동영상 촬영 전문가가 전속으로 활동하며 농식품 홍보 콘텐츠 제작을 돕고 있다.

사진 1장당 2000원과 5분 안팎 동영상 13만 원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 스튜디오’를 개방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 생산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농장 전경과 수확 장면 등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다.

최근 고용 유지차(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와 고흥석류 크리스피롤(파머스맘) 등 광주·전남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이 ‘스마트 스튜디오’를 거쳐갔다. 지난 10월에는 작두콩 차 등을 대표 상품으로 내놓은 강진도깨비농장과 영광황토꿀비 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또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 활용할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도 올해 신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농번기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 촬영을 늘리고 식품 박람회 등에서 스마트 스튜디오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TV홈쇼핑에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일 운영되는 ‘aT 스마트 스튜디오’는 연중 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센터 홈페이지내 ‘스마트 스튜디오’ 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 금남로에 문을 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광주’는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상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 ‘스마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농식품 사진 촬영. <aT 제공>

품이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푸드 비즈니스’ 특화를 내건 이 곳은 ▲푸드 비즈니스 온라인 창업 기본 교육과정 ▲푸드 제품사진 진단 컨설팅 ▲스튜디오 및 전문 인력·촬영장비 지원 ▲브랜드 로고 제작 지원 등을 진행한다.

파트너스퀘어는 실시간 요리방송을 할 수 있는 ‘쿠킹스튜디오’와 포토·영상 복합 스튜

디오, 레코딩룸과 편집실 등을 갖추고 카메라와 조명, 식기 및 소품 등을 모두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농식품 장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네이버 쇼핑 이해하기’ ‘업종별 스튜디오 촬영’ 등 3단계로 구성된 창업 기본 교육을 하고 있다.

파트너스퀘어 지원을 통해 완성된 농식품 콘텐츠는 ‘네이버 푸드윈도’에서 만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양파 생산량 급증 가격 폭락 내년 재배면적 최대 25% 감소

통계청, 마늘도 최대 11% 줄 듯

올해 가격 폭락을 겪은 양파 재배면적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산 마늘·양파 예상 재배면적 결과’ 자료를 보면 내년 양파 재배 면적은 1만6209~1만8318ha로, 올해(2만1777ha)보다 15.9~25.6% 감소할 전망이다.

최대치인 25.6% 감소가 현실화한다면 1996년(-38.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기록된다.

이는 올해 양파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급락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광주·전남 양파 생산량은 58만4279t으로 지난해(56만2485t) 보다 2만여 t(3.8%) 증가했다.



전남농협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전남도청과 남악 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열고 무안 일로농협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농산물을 선보였다. 이날 ‘감귤축비축진 운동’의 하나로 구매고객에게 제우스산 감귤을 나눠줬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 공익형직불제 도입 촉구 100만 서명 운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에 산림분야가 빠져 있어 임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 민)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을 위한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7일 광주송정역 일대에서 2019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대기

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은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연간 126조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지녔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산림소유자 대부분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반드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임야가 포함돼야 한

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계기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증액되면서 직불제 개편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공익형 직불제로 직불제를 개편함으로써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곡물을 재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올 코스피 7.98%·WTI 원유 35.90% 상승  
미·중 무역 분쟁 협상 전환 등 위험자산 최고  
반도체와 철강·화학 등 업종대표주 긍정적

2019년을 보내며 돌아켜보면 연초대비 12월27일 기준으로 다우와 나스닥, S&P500지수가 각각 22.79%, 35.73%, 29.28% 상승했고, 독일 Dax30과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도 각각 26.32% 및 20.53% 상승했다. 우리증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KOSDAQ지수가 2.07% 하락했지만 KOSPI지수는 7.98% 상승했다. WTI 원유와 국제금(\$/온스)가격도 각각 35.90% 및 18.46% 상승했다. 위험자산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위험자산 강세 배경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미·중 간의 무역 이슈가 2018년 분쟁에서 2019년에는 협상으로 전환됐다. 특히 4분기에는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미 연준 금리정책이 2018년 인상기조에서 2019년에는 인하기조로 전환됐다. 여기에 4분기에는 미 연준의 매월 600억달러 자산매입과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단기자금 공급이 가세하며 유동성이 확대됐다.

셋째, 3분기 미국 GDP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연율 2.1% 성장하는 예상외의 탄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2020년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됐다. 미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 흐름이 미국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선진국증시가 동반상승 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 해소가 확정적인 가운데 글로벌 위험자산의 강세기조가 2020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물 경기가이러기 비박을 확인했다는 견해가 높는데 고용과 소비지표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확인시켜 주는 지표결과 필요하다.

다만 선진국지수는 시장지표 조정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한 만큼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돌발악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1월1일부터 미국 볼커 룰(Volcker Rule) 개정안이 발효된다. 볼커 룰은 미국 금융위기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및 파생상품, 헤지펀드 등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은행부 실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투자여력이 생긴 금융회사는 고배율 부담이 있는 선진국시장에서 무역분쟁 완화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과 밸류 메리트를 보유한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순환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증시는 2019년 가장 상승이 낮은 시장 중 하나로 거시건전성 및 밸류메리트가 있고 외국인 수요가 원활해 외국인투자자에게 관심이 높은 국가로 주목해 살필 필요가 있다.

필자는 12월 국내 주식비중확대를 권유했고 코스피지수는 2200선을 회복해 2200선 안착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단기상승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와 철강, 화학 등 업종대표주는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2000년 이후 1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지수 연평균수익률이 10.7%로 상대적 강세가 매우 높은 기간이라고 언급했다. 코스피지수 대비 상승폭은 크지 않아 현시점에서 코스피 보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를 권유하고 싶다. 종목접근이 어려운 투자자라면 코스닥ETF(상장지수펀드)로 접근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